

간논지 성이라는 명칭은, 성터의 중심 부근에 있는 간논쇼지(觀音正寺, 중세에는 간논지라는 사원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남북조시대(14세기)의 태평기『太平記』라는 서적에 「간논지의 성곽」이라고 쓰여진 것이 처음입니다. 산 정상에서 남쪽 경사면에 걸쳐서 산기슭 전체에 성곽이 퍼져있지만, 이것들의 대부분은 간논쇼지의 유적일 것이라 생각되어, 성곽 유적과의 구별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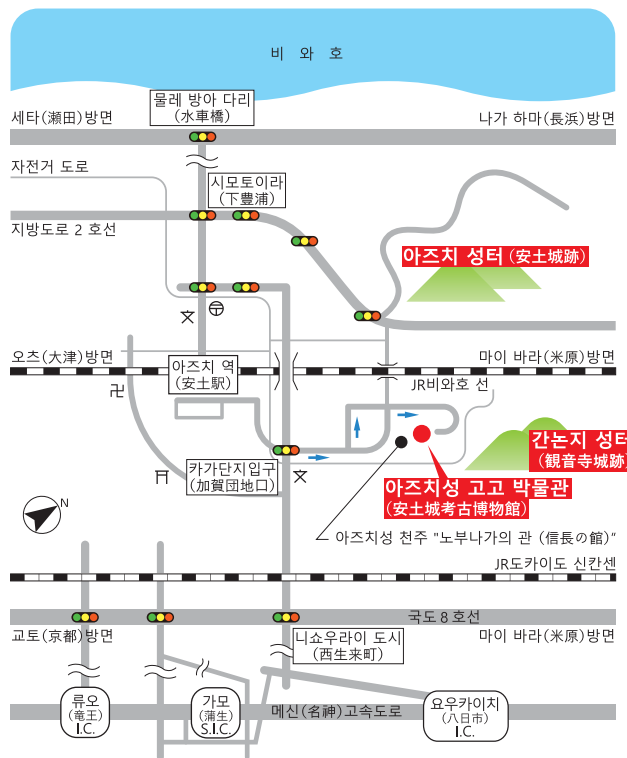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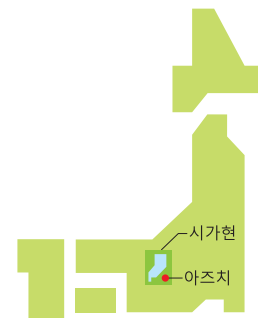
덴히라이마루(伝平井丸)의 입구 부분

성의 중추 부분은 간논쇼지 경내의 서쪽에 있고 덴혼마루(伝本丸), 덴히라이마루(伝平井丸), 텐이케다마루(伝池田丸)의 근처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곽들은 면적이 커서, 커다란 바위를 사용한 장대한 돌담이 성벽을 감싸고 있습니다. 덴분13년(1544)에 성을 방문한 타니 소우보쿠(谷宗牧)는, 2층의 다다미 방에 안내되어, 다실(茶室)에는 차기(茶器)의 명품이 놓여있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간논지 성이 요새였던 것과 함께, 사사키 록카쿠시의 풍요한 생활의 장소였던 것이 비춰집니다. 쇼와45년(1970)의 발굴조사에서도, 차기나 중국산의 도자기 등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에이로쿠11년(1568)에 오다 노부나가가 간논지 성을 공격했고, 성주였던 록카쿠 조우테이(六角承禎)·요시하루(義治)가족은 도망을 가, 맥 없이 성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덴쇼7년(1579)에 오다 노부나가 아즈치 성을 완성시킴으로써, 간논지 성은 성으로서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간논지 성터(觀音寺城跡) 출토 유물
(아즈 치성 고고 박물관 소장)



발행 : 시가현 박물관 활성화 추진위원회

편집 : 시가현립 아즈치성 고고박물관

〒521-1311 滋賀県近江八幡市安土町下豊浦6678

Tel.0748-46-2424 Fax.0748-46-6140

e-mail : gakugei@azuchi-museum.or.jp

URL : http://www.azuchi-museum.or.jp/



平成29年度 文化庁 地域の核となる美術館・歴史博物館支援事業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in the fiscal 2017

간논지(觀音寺)성터

—사사키 록카쿠시(佐々木六角氏)의 거성(居城)—



하늘에서 본 간논지 성터(觀音寺城跡)

간논지 성은, 고도 432m의 키누가사야마(織山)에 세워진 성곽입니다. 성주였던 사사키 록카쿠시가, 가마쿠라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12세기말~16세기) 오우미국(近江国)의 수호를 맡아, 전국시대에 거성으로 삼았던 것이 간논지 성입니다. 중세 산성의 유적으로서는, 걸출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즈치 성(安土城)보다도 이른 단계에 돌담을 많이 사용한 성곽으로 유명하지만, 돌담을 많이 사용한 모습으로 정비 된 것은, 1530~60년대라고 생각됩니다.

시가현 박물관 활성화 추진위원회

시가 현립 아즈 치성 고고 박물관



사적 간논지 성터 측량도면
—— 산책로